

인쇄연합회·경북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실습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우수인력 확보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근)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쇄정보센터 2층 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총장 전지용)와 인쇄업계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산학협력은 상호신뢰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산·학간 정보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습 및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수근 대한인쇄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김현석 서울조합 조정분과위원장 등이, 경북대학교에서는 전지용 총장, 정인준 산학협력단장, 성기혁 홍보지원실장, 이관식 시각디자인과 주임교수, 김기준 염성주 디자인학부 교수 등이 참가했다.

고수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나라는 현대 인쇄기술도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인쇄가족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화시대의 주역인 인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관건이다.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지용 총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우리대학에서는 전국 대학에서 제일 많은 2500여개의 산학협력을 체결해왔다. 학생에게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결식 이후가 더 중요하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자주 만나 산학협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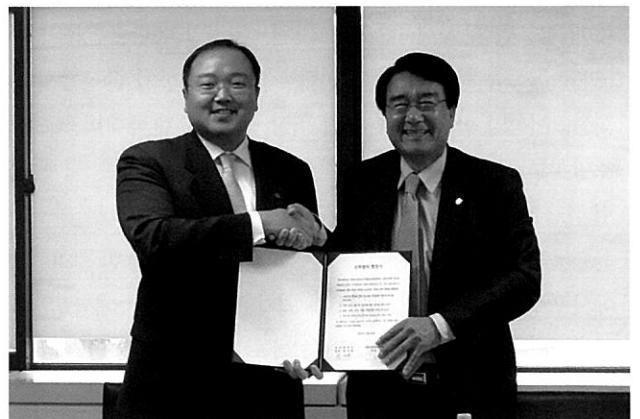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경북대학교가 맺은 산학협력 협정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인적·물적 지원 및 정보 등 학술교류를 통한 협력 △문화, 관광, 공연, 교육, 취업지원 등의 상호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담고 있다.

100% 취업보장형의 특성화된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는 복지예술분야 중심의 남양주캠퍼스와 간호·보건분야 중심의 포천캠퍼스로 특성화돼 있으며 6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경북대학교는 교과부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2009년), 경기 평생교육대학에 선정(2010년, 2012년), 교과부 교육기부 인준대학 선정(2011년),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2011년), 경기 동북부 유일 창업보육센터 설립인가(2012년)를 받았다. 재학생 60%가 장학금 수혜를 받으며, 가계 곤란자에게도 다양한 장학혜택을 부여하는 등 풍부한 장학제도는 수도권 최고를 자랑한다. 이외에도 연간 240명의 학생에게 싱가포르 MDIS대학교에서 2~3주간 여학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캠퍼스 디자인학부에는 3D CG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는 ‘디지털산업디자인 전공’, 광고·편집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각디자인 전공’, 광고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광고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광고디자인 전공’ 등이 있다. ↻



전지용 경북대학교총장과 고수근 인쇄연합회 회장이 MOU를 체결한 후 웃고 있다.